한국학연구 제62집 | 267~298쪽 | 2021.8.

한국어 '-더라'의 중국어의 대응 표현 분석

송승남*

〈차 례〉

1. 서론
2. 선행 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3. '-더라' 의 의미 분석
4. '-더라' 의 중국어 대응 표현 분석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중 대조 분석의 관점에서 한국어 '-더라'의 중국어 대응 표현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국어 '-더라'는 '화자의 과거의 지각 행위'라는 증거성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선행 명제의 성격에 따라 그 의미를 '봄', '알게 됨', '느낌'으로 세분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한국어 '-더라'의 중국어 대응 표현을 '来着', 시태조사(时态助词)인 '了1', '过' 등으로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의 증거성 표현 수단들에 입각하여 '-더라'의 대응 표현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더라'가 '봄'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중국어의 '我看见/看到', '알게 됨'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我发现', '느낌'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我觉得/感到'와 대응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더라'에서 관찰되는 소위 '비동일주어제약'과 '동일주어제약'은 '我看见/看到'와 '我觉得/感到'가 쓰인 문장에서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국인을 위한 '-더라'의 교육 자료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더라', 증거성, 중국어 대응 표현, '봄', '알게 됨', '느낌', 주어인칭제약

*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서론

본 연구는 한·중 대조 분석의 관점에서 한국어 '－더라'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밝히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간 한국어 '－더라'의 '－더－'의 의미에 대해서는 시제적, 서법적, 양태적 의미로 여겨져 왔는데, 최근에는 '－더라'를 증거 양태(evidential modality) 혹은 증거성(Evidentiality) 범주에 속한 어미로 설명하는 논의가 대부분이다(장경희 1983, 1985; 송재목 1998, 2011; 임동훈 2008; 정인아 2010 등). 그 의미 기능에 대해서 장경희(1983)에서는 '지각자', '과거', '지각하다'와 같은 세 가지 의미 자질로 설명하고 있다. 그 논의에 의하면 '－더라'가 쓰인 문장은 화자가 과거에 명제를 지각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1)]

중국어는 고립어에 속하고 한국어처럼 풍부한 어미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라'와 일대일로 대응될 수 있는 표현은 없다.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어 '－더라' 혹은 '－더－' 종결형을 중심으로 한 '－더－'와 중국어 '来着'에 대한 대조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왕방(2010), 왕파(2013), 진관초(2015), 서만(2019)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중국어에서 '－더라'와 가까운 문법 장치가 '来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서만(2020)은 한국어 '－더－' 종결형의 대응 표현을 모두 '来着'로 통일시켜 한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더라'의 중국어 대응 표현을 밝혀보려는 연구도 있었는데, 太平武(2013), 웅위문(2018)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이들은 '－더라'의 중국어 대응 표현을 대체로 '看见', '得知', '觉得' 등과 같은 감관동사(感官动词), '了1[2)]', '过[3)]'와 같은 시태조사(时态助词)로 파악하였다. 그

1) 장경희(1983 : 294-297)에 의하면, '지각자'는 '－더라'가 쓰인 문장의 1인칭 화자와 동일하다. 그리고 '과거'라는 것은 과거 시제의 과거가 아니라 지각자가 명제를 지각하는 시점이 항상 발화 시점보다 이전에 위치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지각하다'는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하게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장경희(1983)은 '－더라'가 양태의 어떤 하위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임동훈, 2008). 한편, 임동훈(2008)은 장경희(1983)의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더라'가 과거 지각을 의미하는 증거 양태 범주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후 정인아(2010), 송재목(2011) 등은 '－더라'가 양태와는 별개의 범주인 증거성 범주에 속한다고 하면서 직접 증거 표지로 설정하였다.

2) 웅위문(2018)은 '了'를 '了1'과 '了2'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여기서 '了1'은 시태조사, '了2'는 어

러나 이들 논의에서 제시된 중국어 대응 표현은 모두 '－더라'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모든 언어에 엄밀하게 세분화된 증거성 체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언어에 '정보・지식의 출처・원천'을 나타내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단언할 수 없다(Lazard 2001; 牛保义 2005 : 57). 중국어에는 한국어의 '－더라'처럼 화자의 지각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어휘적 표현 수단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더라'의 대응 표현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더라'에 대한 교육 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며, 중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더라'를 효율적으로 이해하며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 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그 동안 대조 언어학이나 교육적 측면에서 한국어 '－더라'와 유사한 표현이나 대응 표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유사한 표현과의 대조 연구로는 왕방(2007), 왕파(2013), 진관초(2015)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왕방(2007)은 한국어의 '－더라'를 회상의 의미를 가진 시제 표지로 파악하여 중국어의 '来着'와 '过'에 대응된다고 보아 양자를 대조 분석하였고, 왕파(2013)은 회상 표현의 측면에서 '－더라'와 '来着'를 본격적으로 대조 분석하였으며, 진관초(2015)는 증거성의 관점에서 '－더라'와 '来着'를 대조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더라'의 대응 표현에 관한 연구로는 국립국어원(2010), 太平武(2013), 웅위문(2018), 그리고 서만(2020) 등의 연구가 있다. 국립국어원(2010)은

기조사에 속한다. 시태조사 '了1'과 관련하여 吕叔湘(2005)는 '了1'이 동사 뒤에 올 때는 동작의 완성을, 형용사 뒤에 올 때는 어떤 변화가 이미 완성되어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음을, 명사나 수사 뒤에 올 때는 어떤 새로운 상황이 이미 나타났거나 앞으로 나타날 것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3) 刘月华・潘文娱・故韡(2005 : 455-458)에 의하면, 시태조사 '过'는 일찍이 어떤 동작이 발생하였거나 상태가 존재했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더라’류 종결어미를 중국어의 ‘亲自’, ‘发现’ 등으로 번역하였고, 太平武(2013)은 ‘-더-’ 종결형을 중국어의 ‘看见’, ‘觉得’, ‘发现’ 등으로 번역하였으며, 웅위문(2018)은 ‘-더라’의 대응 표현을 동작의 완성이나 경험을 나타내는 시태조사인 ‘了1’, ‘过’로 파악하였다. 또한 서만(2020)은 국립국어원(2010)에서 밝힌 ‘亲自’, ‘发现’ 등의 대응 표현은 화자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발견’만을 나타낼 뿐 ‘-더라’의 의미인 ‘과거 지각’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반박하면서 ‘-더라’류의 대응 표현을 모두 ‘来着’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논의에 대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의 전통 문법 체계에서 ‘-더라’는 회상의 의미로 여겨져 왔고 중국어의 ‘来着’와 ‘过’는 각각 회상의 의미[4]나 경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라’와 대응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한국어의 ‘-더라’와 중국어의 ‘来着’를 ‘회상 표현’으로 대응시킨 것은 기본 의미가 아닌 화용적 의미만을 살펴본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왕방(2007)과 왕파(2013)의 연구는 한국어 ‘-더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来着’에 대한 이해도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더라’가 증거 양태나 증거성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한국어학계에서 대체로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来着’의 기본 의미 설정 문제에 대해서 중국어학계에서는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연구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来着’를 증거 양태나 증거성 표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진관초(2015)는 증거성의 입장에서 ‘-더라’와 ‘来着’의 대조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그가 “본고는 중국어 ‘来着’가 증거성 표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선지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그간 한국어 ‘-더라’에 가까운 중국어 문법 표지가 ‘来着’라고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증거성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来着’를 범언어적으로 증거성 표지에 귀속시키는 것이 적합한지를 살피는 데 그 목적을 두는 것이다”라고 한 것과 서

4) 吕朋林(1987)은 ‘来着’를 양태 조사로 보아 그 의미를 ‘회상어기(回忆语气)’으로 보았고, 그 외에 이은수(2004)도 ‘来着’의 의미를 ‘회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만(2019)가 "이들 논의(대조 연구)에서 '－더(라)'의 범주의 설정에 있어 차이점을 보였지만 연구의 출발점은 모두 한국어 '－더(라)'와 타 언어 대응 표현에 대한 대조 분석을 함으로써 '－더(라)'와 타 언어 대응 표현 간의 의미 대응 관계와 사용 제약을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실제 사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화용적 특성과 담화기능에 대한 분석은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이에 본고에서...더불어 '－더라'와 '来着'의 화용적 특성 및 담화기능에 대한 대조 분석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 것은 '来着'의 기본 의미와 범주 설정에 대한 회피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만약 '来着'를 증거 양태나 증거성 표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来着'를 가지고 과연 한국어 '－더라'를 설명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와 대응시켜 가면서 학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어 '－더라'의 경우, 중국어에 일대일로 대응할 만한 표현이 없다. '来着'는 '－더라'와 달리 중국 북부 방언에 속하고 남부 지역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빈도는 그리 높지 않다. 뿐만 아니라 '来着'는 통상 무의식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来着'에 대한 인식은 매우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조 연구를 살펴보면, '－더라'와 '来着'는 많은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来着'는 '－더라'의 본질과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来着'를 '－더－' 종결형의 대응 표현으로 통일시키자는 서만(2020)의 주장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더라'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학습 및 활용을 위해서는 '－더라'에 보다 적합한 대응 표현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웅위문(2018)은 '－더라'의 대응 표현을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는 시태조사인 '了1'로 파악하였는데, 현재 적지 않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도 종결형으로 나타나는 '－더라'가 중국어의 시태조사와 대응된다고 보고 있다.

(1) 가. 개는 땅에 떨어지자마자 피를 흘리며 도망을 치더라고.

狗掉到地上, 鲜血淋淋地逃跑了1。 (웅위문, 2018 : 63-75)

예문 (1)은 웅위문(2018)의 연구에서 그대로 가져온 예문이다. 중국어에서 '了1'은 동사 뒤에 올 때 동작의 완성을 나타낸다. 예문 (1가)의 중국어 번역문은 '了1'이 '逃跑' 뒤에 붙어 '逃跑'의 대상인 '狗(개)'의 '逃跑(동망을 치다)'라는 동작이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서술이다. 즉, '了1'은 '逃跑'라는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더라'는 '도망을 치다'라는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또한 '狗掉到地上, 鲜血淋淋地逃跑了1'은 한국어의 '개는 땅에 떨어지자마자 피를 흘리며 도망을 쳤다'와 대응되는 것이지, 예문 (1가)의 한국어와 대응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더라'는 시태조사인 '了1'과 대응시킬 수 없다.[5)]

넷째, 太平武(2013)은 '－더－' 종결형의 중국어 대응 표현으로 '看见', '觉得', '发现' 등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는 그의 견해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더라'는 증거성이나 지각의 의미를 표시할 때 화자의 과거의 지각 행위를 말한다. 그 지각 행위는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 행위를 가리킨다.[6)] 중국어의 '看见', '觉得', '发现'은 감관동사에 속하고 인간의 지각 행위를 나타내며 각각 '보다', '느끼다', '알게 되다'의 뜻을 가진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은 그저 '－더라'의 '지각 행위'만을 나타낼 뿐 '화자의 과거의 지각 행위'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더－'의 중국어 대응 표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3. '－더라'의 의미 분석

그동안 '－더라'의 의미에 대해서는 '회상 시제'(최현배, 1937), '보고'(서

---

5) 웅위문(2018)은 '－더라'의 대응 표현을 찾기 위해 소설책을 주된 연구 자료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더라'는 일반적으로 구어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소설책보다는 실제 담화 상황을 반영하는 드라마 대사를 선정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6) 장경희, 「{더}의 의미와 그 용법」, 『언어』 8(2), 한국언어학회, 1983, 293~313쪽; 송재목, 「'－더니'와 '－있더니' : 선어말어미 '－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어학』 60, 국어학회, 2011, 33~67쪽.

정수, 1977), '보고, 신빙성 결여, 관심 거리'(신현숙, 1980), '지각자, 과거, 지각하다'(장경희, 1983) 등으로 여겨져 왔는데 유형론적인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증거성(Evidentiality)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최근에는 '－더라'를 증거성 혹은 증거 양태적인 의미로 설명하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송재목 1998; 정인아 2010 등).

최현배(1937)에서는 '－더라'를 회상을 나타내는 시제 표현이라고 하였는데, 이후의 많은 논의들에서 최현배(1937)의 관점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더라'가 회상 시제가 아니라는 증거는 역시 많이 제시되었는데, 대표적인 반례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2) 가. *나는 병실에 있더라.
나.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병실에 있더라. (김혜영, 2004 : 36)

(3) 가. 그 사람은 내일 가더라. (강승혜, 2009 : 401)
나. 우리 집엘 찾아왔더라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1회)[7]

첫째, 회상의 의미는 '－더라'의 비동일주어제약에 대한 설명력이 약하다(나진석 1971, 정문수 1983). 예문 (2가)에서 문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만약 '－더라'의 의미가 회상이라면 왜 '내가 나 자신이 과거에 병실에 있었다는 것도 회상할 수 없는가? 나 자신에 관한 일은 훨씬 더 잘 회상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문장 안의 '정신을 차려보니'라는 전제를 붙이면 비동일주어제약이 바로 해소될 수 있는 것도 역시 '회상'의 의미로는 설명할 수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과거 시제 표현이라면 과거 시간 부사(구)와만 결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문 (3가)에서 제시된 것처럼 미래를 나타내는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구)와도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면

7) 본 연구는 주로 논문에서 나온 예문을 통해서 연구 자료를 얻는 것이다. 다만 '－더라'가 주로 구어체에서 나타나 논문에서 나온 예문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1〉1~12회, 〈RUN ON〉1~16회의 대사를 활용하였다.

‘-더라’를 단순한 과거 시제로 보는 것도 타당치 않아 보인다. 그리고 만약 ‘-더라’가 단순한 시제 표현이라면 전형적인 시제 표지인 ‘-었-’과 계열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예문 (3나)에서 보듯이 ‘-더라’는 ‘-었-’과 통합 관계를 이루고 있다.

서정수(1977)에서는 ‘-더라’의 회상의 의미를 부인하면서 ‘-더라’의 의미를 ‘보고’로 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화자가 명제를 지각하였다는 것을 청자에게 보고하다’라는 뜻이다. 하지만 ‘-더라’의 의미를 ‘보고’로 파악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는데, 우선, ‘-더라’는 전형적인 보고문에서 쓰일 수 없다(정문수, 1983).

(4) 가. 인원 보고(입니다). 총원 60, 사고 2, 현인원 58 (ㄱ.입니다. ㄴ.*입디다.)
(정문수, 1983 : 13)

예문 (4)는 군대에서 인원을 보고할 때 자주 쓰이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적인 보고 장면에서 보고의 의미를 나타내는 ‘-더라’는 사용될 수 없다.

(5) 가. *나는 옷을 입더라.
나. *[나(는) [내(가) [내가 옷을 입었다]S2 (는 것을) 보았다]S1(고) 너(에게) 보고한다]S0 (서정수, 1977 : 107)

예문 (5)에서 제시한 ‘-더라’의 비동일주어제약 현상에 대해서 서정수(1977 : 107)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고자 자신에 관해 말해야 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비동일주어제약이 일어나는 이유는 화자 자신이 옷을 입었다는 것을 직접 지각할 수 없는 것에 있는 것이지 화자가 자신에 관해 말해야 할 경우란 거의 없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보고의 상황에서는 청자가 잘 알고 있는 청자에 관한 일을 보고한다는 것은 보고의 행위에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반면, 화자 자신의 일을 보고하는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이다(장경희, 1985 : 61).

한편, 신현숙(1980)에서는 보고의 의미를 인정한 상태에서 '신빙성 결여'와 '관심 거리'의 의미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 하지만 신빙성 결여라는 의미는 이미 보고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임홍빈, 1982 : 435).

'-더라'의 '지각'이라는 의미는 한국어학계에서 요즘 지배적인 논의이다. 장경희(1983)에서는 '-더라'의 의미를 '지각자', '과거', '지각하다'의 세 가지 의미 자질로 나누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 가운데 '지각하다'라는 의미 자질을 시각, 촉각, 청각 등과 같은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 행위로 해석하였다. 송재목(2011)에서는 '-더라'를 증거양태로 보고 그 의미를 '과거의 감각적 관찰'로 해석하였다. 지각 행위에 대한 해석은 장경희(1983)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사실상 같은 뜻으로 보인다. 그에 의하면 '감각적 관찰'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과 같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행위다.

(6) 가. {네가, 그가} 방에서 나오더라. (송창선, 2015 : 130)
나. {네가, 그가} 춤을 추더라. (송창선, 2015 : 130)

예문 (6)에서처럼 상대방 또는 그가 방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각하지 않았거나 관찰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는 화자가 상대방 또는 그가 춤을 추는 것을 보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즉, '지각'의 작용이 없으면 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나진석(1971 : 26-27)이 제시한 '-더라'는 화자가 직접 체험 혹은 관찰한 사실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용법상의 제약', 그리고 서정수(1977)의 '몸소 살핌 제약'은 모두 '지각'의 의미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장경희(1983)과 송재목(1998)에서는 '-더라'의 의미를 제시할 때 모두 '과거'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단순한 시제 표현은 두 가지 시간적 의미, 즉 사건시와 발화시를 가진다.[8] 하지만 '-더라'는 세 가지 시간적인 의미를 가진다. 즉, 사건시, 지각시, 그리고 발화시다. 따라서 이들 논의에서 말하려

고 하는 과거는 과거 시제의 과거가 아니라 화자가 명제를 직접 지각하는 시간이 항상 과거에 있다는 것이다. 지각시는 발화시, 사건시와 상관없이 항상 발화시에 앞서고 과거에 있다는 것이다(유동석, 1981; 정문수 1983; 이익섭 1978 등).

또한 송재목(1998)은 지적하지 않았지만 장경희(1983)이 지적하였듯이, '-더라'에는 '과거 지각'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각 행위를 행하는 지각자인 1인칭 화자도 함께 들어가 있다.[9] 다시 말하자면, '-더라'는 화자의 과거 지각 행위만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7) 가. (내가 보니) 거기 골프장 진짜 좋더라.

(〈슬기로운 의사생활〉 8회)

나. *(네가 보니) 거기 골프장 진짜 좋더라.

다. *(그가 보니) 거기 골프장 진짜 좋더라.

예문 (7)은 '거기 골프장 진짜 좋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선행절의 주어가 화자와 동일한 것을 지시하는 1인칭일 때만 후행절과 호응을 보여주어 '-더라'에는 지각자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라' 안에는 '직접 지각'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직접 지각 행위를 행하는 지각자기 요구된다. 화자가 자신이 지각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장경희, 1983 : 295). 이 지각자는 1인칭 화자와 동일하다.

요컨대 '-더라'는 '화자의 과거의 지각 행위'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으로, '화자가 명제를 직접 지각했음'이라고 할 수도 있다(장경희, 1983 : 296).

---

8) 고영근·구본관(2008)에 따르면 시제(时制, 때매김, tense)는 화자가 발화시를 기준축으로 삼아 앞뒤의 시간을 제한하는 문법범주이고,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에 선행하는 표현이다.

9) 목정수(2014 : 281-293)에서도 '-더라'의 기본 의미에서 '1인칭 화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더라'가 '과거직접관찰'이라는 증거성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자 1인칭과 관련된다고 지적하였다. 그에 의하면 '-더라'가 통합되는 문장에서 1인칭 화자는 서술어가 표현하는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제시된 정보의 진실성을 책임지는 입장을 나타낸다.

(8) 가. 방 나오는데 (보니) 양석형 교수가 문밖에 서 있더라.
(〈슬기로운 의사생활〉 4회)
나. (들어 보니) 라디오 소리가 크더라. (장경희, 1985 : 69)
다. 오늘 시금치된장국이랑 불고기 나왔는데 (먹어 보니) 맛있더라.
(〈RUN ON〉 8회)
라. (만져 보니) 딱딱하더라. (장경희, 1983 : 296)

위의 예문은 시각, 청각, 미각, 촉각 등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행위에 '－더라'가 쓰임을 보여준다는 것을 나타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예문 (8나)~(8라)의 경우, '라디오 소리가 큰 것을 들었다', '오늘 시금치된장국이랑 불고기 나왔는데 (밥이) 맛있는 것을 먹었다', '(나무가) 딱딱한 것을 만졌다'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지각 행위'의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데, 예문 (8나)를 사례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기존 연구들에 의거하여 예문 (8나)를 의역(paraphrase)한다면 '라디오 소리가 큰 것을 들었다'와 같이 의역할 수 있다. 장경희(1985 : 66)에서는 이러한 의역된 문장을 반박하면서 '나는 라디오 소리를 듣고 라디오 소리가 크다는 사실을 알았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역시 그의 의견을 인정하지만, 예문 (8나)와 같은 문장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본다. 즉, 출현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그 의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는 장경희(1985 : 66)이 지적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라디오 소리를 듣고 소리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로 해석하는 것이다. '듣다'라는 행위의 대상은 '라디오 소리'와 같은 객관적인 사물이다. 라디오 소리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소리가 크다고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소리가 작다고 여긴다. 따라서 '소리가 큰지 작은지'는 라디오 소리를 들은 사람에 따라 객관적인 사물에 대해 내린 주관적인 느낌이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더라'가 쓰인 문장의 명제는 단순히 지각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화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판단도 함께 들어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예문 (8나)와 같은 문장을 '나는 라디오를 듣고 소리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

로 해석하는 것이 더 뚜렷하다고 느껴진다. 따라서 예문 (8가)는 '나는 양석형 교수가 문밖에 서 있는 것을 봤다. /알게 되었다.'로, 예문 (8나)는 '나는 라디오 소기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로, 예문 (8다)는 '나는 맛있다는 것을 느꼈다.'로, 예문 (8라)는 '나는 딱딱하다는 것을 느꼈다.'로 의역하기로 한다.

한편, 정문수(1983)은 '－더라'의 의미가 명제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변이의미(变异意味)로 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더라'는 선행부가 인용문이 아닌 경우 선행 명제의 성격에 따라 '봄', '알게 됨', '느낌' 등의 의미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10] 즉, 사건시와 지각시가 동일한 동태적인 상황의 경우, '－더라'의 의미는 '봄'으로 이해되고, 사건시와 지각시가 동일하지 않은 동태적인 상황의 경우, '－더라'의 의미는 '알게 됨'으로 이해되며, 명제의 내용이 심리, 생리적인 현상을 나타낼 때, '－더라'는 '느낌'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문수(1983)의 분류는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조금씩 수정하였다. 본 연구는 예문 (8나)~(8라)와 같은 주관적인 느낌이나 판단도 심리적 현상의 한 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더라'가 쓰인 문장에서 명제에 해당되는 정보의 출처는 지각자/1인칭 화자가 과거에 직접 지각한 것이며 그 지각 행위는 화자의 감각기관을 통해 보거나 알게 되거나 느끼게 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

10) 익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한 분이 "'－더－'가 사용되는 상황을 '봄, 알게 됨, 느낌'으로 분류하였는데 '봄', '느낌'과 '알게 됨'이 그 자체로 상호 배타적이라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가령 "너희 형이 담배를 피우더라."는 '보아서 알게 된' 때에 쓰인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하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봄', '느낌', '알게 됨' 등 그 자체로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 의미가 실현되는 환경은 상호 배타적이라는 점이다. '너희 형이 담배를 피우다'라는 사건이 사건시와 지각시가 동일한 동태적인 상황이라고 볼 때, '너희 형이 담배를 피우더라'라는 문장은 '화자가 너희 형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화자가 모르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어의 습관이나 속성으로 볼 때 '－더라'와 함께 나타나는 문장을 '화자가 모르고 있었는데 너희 형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 경우, '봄'의 의미보다는 '알게 됨'의 의미가 더 뚜렷하다.
또한 "'라디오를 들었는데 김 교수님이 나오셨더라'와 같은 문장은 '봄', '느낌', '알게 됨' 어느 곳에서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김 교수님이 나오셨다'라는 사건은 사건시와 지각시가 동일한 동태적인 상황에 속한다. 이때, '－더라'는 지각 행위를 통한 느낌이나 알게 됨보다 지각 행위를 더 강조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단 '라디오를 들었는데 김 교수님이 나오셨더라'와 같은 문장이 '봄'에 해당한다고 보고 향후의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다.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기능은 증거성 범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증거성은 '명제가 나타내는 지식이나 정보의 출처・원천'을 명시하는 문법 범주이다(Aikhenval'd, 2004 : 03). 일반적으로 화자가 자신의 눈을 비롯한 오감을 통해 정보를 획득할 때 직접 증거라고 하고,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음으로써 정보를 획득할 경우 보고 증거라고 하며, 어떠한 근거나 흔적을 바탕으로 추론하여 정보를 획득할 경우 추론 증거라고 칭한다. '－더라'의 의미 기능은 직접 증거성 표지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4. '－더라'의 중국어 대응 표현 분석

중국어는 주로 어휘적인 수단으로 정보/명제의 획득 방법을 표현한다. 陈征(2015), 朱永生(2006), 赖小玉(2009)의 논의에 의하면 중국어 증거성 표현 수단들의 유형과 실현 수단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1] 중국어의 증거성 실현 수단

품사부류	발언동사	감관동사	양태동사	부사
증거소	说, 讲, 声称, 回答, 宣布	看见, 看到, 听见, 听到, 闻到, 尝到, 摸到, 感到, 觉得, 发现	能, 会, 要, 敢, 应该, 得	八成, 恐怕, 想必, 的确
품사부류	어기사/어기조사	통사 구성	담화표지	삽입구
증거소	的, 吧, 嘛, 呗, 呢, 哩, 喽	说是	我看, 我觉得, 我认为	据说, 听说

중국어의 직접 증거 표현 수단들은 주로 감관동사로 구성된다.[11] 중국어

11) 胡壮麟(1994)에서는 중국어도 감관, 언설(言说), 가설, 그리고 문화 전통 등의 수단으로 화자가 어떠한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 乐耀(2013 : 29)에서는 중국어의 증거성 표현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 증거 표현 수단이고 다른 하나는 간접 증거 표현 수단이라고 하였다. 그 가운데 직접 증거 표현 수단은 언설동사(言说动词), 감관동사, 중동구성(中动结构)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의 감관동사는 인간의 시각, 청각, 미각, 촉각 등 모든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 행위를 말한다. 이들 감관동사는 형태적으로 문장에서 서술어로서, '나'를 의미하는 주어인 '我' 뒤에 위치하며 1인칭 화자가 발화하기 전에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나타낸다.[12] 다음으로 '看见/看到', '发现', '觉得/感到'를 통해 중국어의 감관동사는 문장에서 직접 증거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9) 가. 我看见/看到小红在踢球。
(나는 샤오홍이 축구를 하는 것을 보았다./ 샤오홍이 축구를 하더라.)
나. 我发现护送新娘的父亲角色非常重要。 〈RUN ON〉 8회)
(나는 신부를 에스코트하는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부를 에스코트하는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더라.)
다. 今天早晨我觉得/感到(我)[13]肚子疼。 (太平武, 2013 : 254)
(나는 내가 오늘 아침에 배가 아픈 것을 느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배가 아프더라.)

예문 (9)는 지각자인 1인칭 화자가 문장의 주어와 동일하다. 그리고 감관동사 '看见/看到', '发现', '觉得/感到'는 문장의 서술어로, '나'를 의미하는 주어인 '我' 뒤에 위치한다. 예문 (9가)의 '小红在踢球(샤오홍이 축구를 한다)'라는 명제는 지각자/1인칭 화자인 '我'가 발화하기 이전에 직접 보거나 관찰

12) 朱永生(2006 : 333)에서는 "在汉语言据性的分类问题上, 我们可以像Aïkhenval'd那样, 把言据性大致分为"目击型"和"非目击型"两种。目击型指的是所有以明确的方式交代信息来源的语言现象, 其中包括以下两种情形。一, 明确交代信息来源于讲话者, 结构是"讲话者+感知动词/言语动词+信息内容"。二, 明确交代信息来源于除讲话者以外的任何人, 结构是"第二方/第三方+感知动词/言语动词+信息内容"。"Aïkhenval'd처럼 중국어의 증거성 표현 수단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목격형(目击型, eyewitness)이고 다른 하나는 비목격형(非目击型, non-eyewitness)이다. 목격형은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보가 1인칭 화자로부터 획득되었음을 분명히 말하는 경우로, 그 문장의 형식은 '1인칭 화자+감관동사/언설동사+정보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정보가 1인칭 화자가 아니라 2, 3인칭 화자로부터 획득되었음을 말하는 경우로, 그 문장의 형식은 '2, 3인칭 화자+감관동사/언설동사+정보내용'이다."라고 지적하였다.

13) 중국어에서 모문(母文)과 자문(子文)의 주어가 같을 때, 자문의 주어가 생략할 수 있다.

한 것이다. 예문 (9나)의 '护送新娘的父亲角色非常重要(신부를 에스코트하는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명제는 지각자/1인칭 화자인 '我'가 모르고 있다가 앞으로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예문 (9다)에서의 '(我)肚子疼(내가 배가 아프다)'라는 명제는 화자의 생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지각자/1인칭 화자인 '我'가 발화하기 전에 직접적으로 느낀 것이다.

(10) 가. 从房间里出来的时候(看了看)我看见/看到/发现杨硕亨教授站在门外。
(방 나오는데 (보니) 양석형 교수가 문밖에 서 있더라.)
(〈슬기로운 의사생활〉 4회)

나. (听了听)我觉得/感到收音机声音很大。
((들어 보니) 라디오 소리가 크더라.) (장경희, 1985 : 69)

다. 今天上了菠菜大酱汤和烤肉, (尝了尝)我觉得/感到很好吃。
(오늘 시금치된장국이랑 불고기 나왔는데 (먹어 보니) 맛있더라.)
(〈RUN ON〉 8회)

라. (摸了摸)我觉得/感到很硬。
((만져 보니) 딱딱하더라.) (장경희, 1983 : 296)

이상의 예문들은 시각, 청각, 미각, 촉각 등의 감각기관을 통한 직접 지각 행위에 '看见/看到', '发现', '觉得/感到'가 쓰임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 (10가)는 1인칭 화자가 방을 나왔을 때 양석형 교수가 문밖에 서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봤다는 의미이다. 화자의 '看了看'라는 지각 행위를 통해 보거나 알게 된 것은 '看见/发现'과 대응된다. 예문 (10나)는 1인칭 화자가 라디오 소리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는 의미이다. 화자의 '听了听'라는 지각 행위를 통한 느낌은 '觉得/感到'와 대응된다. 예문 (10다)는 1인칭 화자가 나온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의미이다. 화자의 '尝了尝'라는 지각 행위를 통한 느낌은 '觉得/感到'와 대응된다. 예문 (10라)는 1인칭 화자가 딱딱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의미이다. 화자의 '摸了摸'라는 지각 행위를 통한 느낌은 '觉得/感到'와 대응된다.

(11) 가. 我看见/发现刘正你每天都在公司食堂吃饭。

(유정 씨 맨날 회사 식당에서 먹더라.)

*我没看, 我看见/发现刘正你每天都在公司食堂吃饭。

(나는 안 봤는데, 유정 씨 맨날 회사 식당에서 먹더라.)

나. 我觉得/感到很硬。

(딱딱하더라.)

*我没摸, 我觉得/感到很硬。

(나는 안 만졌는데, 딱딱하더라.)

예문 (11)에서 나온 것처럼, 명제가 1인칭 화자가 직접 지각한 것이 아니면 '看见/看到', '发现', '觉得/感到'와 통합할 수 없다. 예문 (11가)의 경우, 명제인 '刘正你每天都在食堂吃饭(유정 씨 맨날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1인칭 화자가 직접 본 것이 아니면 '我看见/发现'과 통합할 수 없다. 예문 (11나)의 경우, 명제인 '很硬(딱딱하다)'는 것은 1인칭 화자가 직접 만진 것이 아니면 딱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없다.

그러므로 예문 (10)과 (11)을 통해 중국어의 '看见/看到', '发现', '觉得/感到'는 각각 화자의 감각기관을 통해 보거나 알게 되거나 느낀 것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가. 我看见小红在踢球。

(내가 샤오홍이 축구를 하는 것을 보았다.)

나. *你看见小红在踢球。

(너가 샤오홍이 축구를 하는 것을 보았다.)

다. *他看见小红在踢球。

(그가 샤오홍이 축구를 하는 것을 보았다.)

예문 (12)에서 제시한 것처럼, 우선, 평서문에서 '看见'이 2인칭주어와 결합하면 매우 부자연스러운 비문이 된다.[14] 그리고 예문 (12다)는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여기서 '看见'은 증거성 표현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화자인 '我(나)'가 '他看见小红在踢球(그는 샤오홍이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정보를 표현할 때, 이 정보는 다른 사람이 화자인 '我(나)'에게 전해 줄 수도 있고 화자인 '我(나)'가 직접 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문 (12다)에서의 '看见'은 정보의 획득 방법을 규명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직접 증거의 의미를 나타낼 때 중국어의 감관동사들의 주어는 꼭 1인칭 화자인 '我'와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5] 다시 말하자면 '看见/看到', '发现', '觉得/感到'는 인칭 제약 없이 1, 2, 3인칭과 모두 함께 쓸 수 있지만 직접 증거를 나타낼 때에는 1인칭 주어와만 통합된다.[16]

(13) 가. 他走了1。

(그는 갔다.) (太平武, 2013 : 237)

---

14) 朱敏(2007)에서는 2인칭이 평서문에서 유표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2인칭은 주어의 역할을 할 때 항상 의문문이나 청유문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陈颖(2009)에서도 '2인칭 주어+증거 표현 수단인 동사'의 조합은 일반적으로 의문문에서 나타나며 더 이상 증거성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15) 乐耀(2014 : 33)에 의하면, 직접 증거를 나타낼 때에는 항상 '정보 지각자+감관동사+정보'와 같은 구조로 나타난다고 한다. 정보는 명제 내용에 해당되고, 정보 지각자는 1인칭 주어에만 해당된다.

16) 한국어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 문장의 주요 성분을 생략해도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어미를 비롯한 문법 요소들에 그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목정수, 2014 : 74). 선어말어미 '－더－'는 주로 1인칭 화자와 관련이 있다(목정수, 2014 : 281). 따라서 '－더라' 안에는 지각자인 1인칭 화자 '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발화에서 지각자인 1인칭 화자인 '나'가 문장에서 나타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명제의 지각자가 화자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미 체계가 발달하지 않은 중국어는 그렇지 않다. 중국어에서는 문장의 모든 성분이 어휘에 의해서 구현되고 주요 성분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중국어의 감관동사들은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두 자리 서술어에 속한다. 따라서 주어와 목적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주어나 목적어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없으면 비문이 된다. 예문 (9)의 한국어 번역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지각자/1인칭 화자인 '나'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반면, 중국어 대응 표현에서는 모두 '我'로 표시되고 있다. 이때 '我'를 표시하지 않으면 문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중국어에는 '希望', '祝愿'과 같은 동사가 존재한다. 이들 동사는 항상 1인칭 주어 '我'와 함께 나타나 '나는 무엇을 어떻게 되길 원한다./바란다.'의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들 동사가 문장에서 나타날 때에는 주어인 '我'가 생략되어도 문장이 성립될 뿐만 아니라 '希望', '祝愿'의 행위를 행하는 대상이 1인칭 주어인 '我'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看见/看到', '发现', '觉得/感到' 등의 감관동사는 '希望', '祝愿'의 경우와 다르다.

(13') 가. 我看见/看到他走。
(그는 가더라.) (太平武, 2013 : 237)

예문 (13가)는 화자가 단순히 '그는 갔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한 것이다. 예문 (13'가)는 1인칭 화자가 명제인 '그는 가는 것'을 직접 봤다는 것을 청자에게 함께 말할 때 쓰인다. 예문 (13가)에서는 '了1'이 쓰이고 있다. 중국어에는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를 규명하는 시제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는 '了1'이 있다. 과거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때 '了1'이 쓰이는데, 이는 한국어의 '았/었'과 대응된다. 예문 (13'가)에서는 명제 앞에 '我看见/看到(내가 보았다)'가 쓰이고 있는데, 이는 1인칭 화자가 발화하기 전에 '他走(그는 간다)'는 것을 직접 봤음을 표현한다.[17]

(14) 가. 我最年轻。
나. 내가 제일 젊다.

(14') 가. 我发现我最年轻。
나. 내가 제일 젊더라. (정문수, 1983 : 16)

---

17) 陈颖(2009 : 85)에서는 인식동사가 증거성의 의미를 나타낼 때 목적어는 더이상 명사구가 아니라 절이라고 하였다.

(1) 가. 我(已经)知道那本书被偷了。
(나는 그 책을 도둑 맞은 것을 이미 알았다.)
나. *我知道了那本书被偷了。
다. 我知道了解决问题的方法。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에 의하면 예문 (1다)에서의 '知道'는 증거성 의미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1다)는 그저 '我知道了解决问题的方法(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다.)'라는 사건을 청자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의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는 '了1'이 사용됨으로써 '知道'라는 행위가 화자가 발화하기 전에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목적어가 절일 때 '知道' 뒤에는 더이상 '了1'이 쓰일 수 없다. '知道' 그 자체가 동작의 완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직접 증거 의미를 나타내는 감관동사도 마찬가지이다.

예문 (14)의 중국어와 한국어는 모두 1인칭 화자가 '내가 제일 젊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진술한 것이다. 예문 (14'가)는 명제인 '我最年轻(내가 제일 젊다)'와 명제가 청자가 발화하기 전에 직접 지각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도 함께 청자에게 전달한다. 예문 (14'나)는 명제인 '내가 제일 젊다'와 명제가 청자가 발화시 이전에 직접 지각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도 함께 청자에게 전달한다.

(15) 가. 我冷。
나. 나는 춥다.

(15') 가. 我觉得/感到(我)[18]冷。
나. 나는 춥더라.

예문 (15)의 중국어와 한국어는 모두 1인칭 화자가 '나는 춥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예문 (15'가)는 '我觉得/感到'로 인해 1인칭 화자가 '我冷(나는 춥다)'라는 명제를 발화하기 전에 직접 느꼈다는 것을 청자에게 함께 전달한다. 예문 (15'나)는 '－더라'로 인해 1인칭 화자가 '나는 춥다'라는 명제를 발화시 이전에 느꼈다는 것을 청자에게 함께 전달한다.

이상의 '看见/看到', '发现', '觉得/感到'를 통해 중국어의 '我+감관동사' 구성은 1인칭 화자가 발화하기 전에 명제를 직접적으로 지각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1인칭 화자가 과거에 명제를 직접적으로 지각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더라'와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더라'가 '화자의 과거의 직접 지각 행위'를 의미하고 그 의미는 선행 명제의 성격에 따라 '봄', '알게 됨', '느낌'으로 나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제 각각의 의미에 대한 중국어 대응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8) 중국어에서 모문(母文)과 자문(子文)의 주어가 같을 때, 자문의 주어가 생략할 수 있다.

1) ‘봄’의 의미를 실현될 때의 중국어의 대응 표현

우선, 아래의 예문 (16)은 ‘－더라’가 ‘봄’의 의미인 경우이다. 예문 (16가)는 1인칭 화자가 발화시 이전에 ‘영희가 학교에 가다’는 것을 직접 봤다는 의미를, 예문 (16나)는 1인칭 화자가 발화시 이전에 ‘다 큰 처녀들이 한길에서 싸우다’는 것을 직접 봤다는 의미를, 예문 (16다)와 (16라)는 각각 1인칭 화자가 발화시 이전에 명제인 ‘{네가, 그가} 방에서 나오다’와 ‘{네가, 그가} 춤을 추다’를 직접 목격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하튼 예문 (16)은 모두 1인칭 화자가 과거에 시각을 통해 직접 본 것을 의미한다.

(16) 가. 영희가 학교에 가더라. (손혜옥, 2013 : 86)
나. 다 큰 처녀들이 한길에서 싸우더라. (정문수, 1983 : 58)
다. {네가, 그가} 방에서 나오더라. (송창선, 2015 : 130)
라. {네가, 그가} 춤을 추더라. (송창선, 2015 : 130)

중국어에서 시각을 통한 지각 행위를 나타내는 직접 증거 표현 수단은 감관동사인 ‘看见’, 혹은 ‘看到’ 등에 해당된다. ‘看见’, ‘看到’는 직접 증거를 나타낼 때 항상 1인칭 화자인 ‘我’ 뒤에 위치하여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이때, 명제는 문장의 목적어에 해당된다. ‘我看见’, ‘我看到’ 구성은 1인칭 화자가 발화하기 전에 명제를 직접 봤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17) 가. 영희가 학교에 가더라.
我看见/看到英姬去学校。
나. 다 큰 처녀들이 한길에서 싸우더라.
我看见/看到大姑娘们在马路上打架。
다. {네가, 그가} 방에서 나오더라.
我看见/看到{你, 他}从房间里出来。
라. {네가, 그가} 춤을 추더라.

我看见/看到{你, 他}跳舞。

한편, '－더라'가 통합된 문장에서 명제의 시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봄'의 의미를 실현되는 경우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명제의 지각시와 사건시가 동일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사건이 1인칭 화자가 지각하기 전에 이미 완결되었지만 그 결과의 상태는 지각시까지 지속되는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는 예문 (17)에 해당되고, 두 번째 경우는 예문 (18)에 해당된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는 모두 '我看见/看到'의 구성과 대응이 가능하다.

(18) 가. 설악산에는 눈이 많이 내렸더라. (정문수, 1983 : 22)
我看见/看到雪岳山下了很多雪。

한편, 정문수(1983 : 20)에서는 '－더라'가 '봄'의 의미를 실현될 때 비동일주어제약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19] '비동일주어제약'이란 명제의 주어가 1인칭주어일 수 없다는 것이다. 아래 예시를 보면 명제의 주어가 2, 3인칭일 때 모두 '－더라'와 통합할 수 있는 반면, 명제의 주어가 1인칭일 때 '－더라'와 통합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비동일주어제약' 현상은 '我看见/看到' 구성이 쓰인 문장에도 존재한다.[20]

---

19) 정문수(1983 : 20)에서는 '{*내가, 네가, 그가} 책을 읽더라'와 '나는 {*내가, 네가, 그가} 책을 읽는 것을 보았다'라는 예문을 제시하면서 '－더라'가 쓰인 문장과 '화자가 명제를 보았다'로 의역된 문장은 평행한 제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였다.

20) Yang, I. S(1972 : 236)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범언어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영어에서 '－더라'의 대응 표현을 'I saw that'으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면서 영어의 '비동일주어제약' 현상을 설명하였다.

(2) 가. *I saw that I read a book.
나. I saw that you read a book.
다. I saw that he read a book. (Yang, I. S, 1972 : 236)

위에서 제시한 예문을 보면, 영어에서 'I saw that' 명제의 주어는 1인칭 주어일 수 없고, 2인칭이나 3인칭 주어일 수 있다.

(19) 가. *내가/네가/그가 학교에 가더라. (송창선, 2015 : 122)

나. 我看见/看到*我/你/他去学校。

이러한 비동일주어제약 현상에 대해 송재목(2011)은 증거성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더라'가 '과거직접관찰'이라는 증거성 의미를 가지는 요소로 보았다. '관찰'이라는 것은 1인칭 화자를 제외한 주변 환경에 대한 지각 행위이다. 즉, 관찰의 대상은 1인칭 화자가 아닌 제3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라'의 소위 비동일주어제약은 통사론적인 제약이 아니라 '－더라'의 증거성 의미로 인한 의미론적인 제약 현상이다. '我看见/看到' 구성이 쓰인 문장도 마찬가지다. 예문 (19나)에서 '我看见/看到' 구성을 빼면 '我/你/他去学校'는 모두 정상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보면 '我看见/看到' 구성은 명제의 1인칭 주어를 제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중국어에서 '看见/看到'는 인간의 시각 행위, 즉 외부 세계에 대한 관찰을 말한다. 예문 (19나)에서의 '我看见/看到'는 '나는 무엇을 봤다'의 의미를 가지며 관찰자 즉, 시각 행위를 행하는 '我'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찰의 중심에 있는 1인칭 화자의 행위는 관찰의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我看见/看到'의 이러한 '나는 무엇을 봤다'라는 의미가 발생하는 조건은 행위를 행하는 대상이 1인칭 주어가 아닌 제3자여야 한다. 따라서 명제의 주어는 1인칭 '我'일 때 '我看见/看到' 구성과 통합할 수 없다.

2) '알게 됨'의 의미를 실현될 때의 중국어의 대응 표현

'알게 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더라'의 경우를 보면, 아래의 예문 (20가)는 1인칭 화자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로, 예문 (20나)는 1인칭 화자가 자기가 내일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계획표를 통해 자기가 내일 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이고, 예문 (20다)는 1인칭 화자가 모르고 있다가 준완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생긴 거랑 다르게 성격이 매우 꼼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이며, 예문 (20라)는 1인칭 화자가 모르고 있다가 청자의 형이 술을 마시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예문 (20)은 모두 1인칭 화자가 명제에 대해서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있다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 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잘못했더라. (장경희, 1985)
나. 계획표를 보니까 나는 내일 가더라. (장경희, 1985)
다. 우식 씨가 이제 스무살이더라고요. (〈RUN ON〉 5회)
라. 너희 형은 술담배를 피우더라. (장경희, 1985 : 21)

중국어에서 1인칭 화자가 명제에 대해서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있다가 알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감관동사는 '发现'에 해당된다. 또한 '发现'은 직접 증거를 나타낼 때 항상 1인칭 화자인 '我' 뒤에 위치하여 1인칭 화자가 발화하기 전에 명제를 알게 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더라'가 '알게 됨'의 의미를 실현할 경우는 명제가 발생하는 사건시와 지각시가 다르거나 명제가 일반적인 사실 또는 존재, 속성, 습관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즉, '－더라'로 인해서 알게 된 것은 사태가 아니라 사실이다. 예문 (21)을 보면, '－더라'가 '알게 됨'의 의미를 실현될 때 '我发现'과 대응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1) 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잘못했더라.
仔细想了想, 我发现我错了。
나. 계획표를 보니까 나는 내일 가더라.
看了看日程表, 我发现我明天走。
다. 우식 씨가 이제 스무살이더라고요.
我发现宇植现在二十岁。
라. 너희 형은 술담배를 피우더라.
我发现你哥抽烟喝酒。

한편, '－더라'가 '알게 됨'의 의미를 실현할 때, '1인칭 화자가 모르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我发现'도 마찬가지다.[21] 따라서 '1인칭 화자가 모르고 있음'이라는 전제에 부합하지 않을 때, '－더라'나 '我发现'은 쓰일 수 없다.

(22) 가. *내가 담배를 피우더라. (장경희, 1983 : 303)
나. *我发现我抽烟。

(23) 가. 나만 담배를 피우더라. (장경희, 1983 : 303)
나. 我发现只有我抽烟。

예문 (22)에서 제시한 것처럼,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1인칭 화자가 자기의 습관을 모를 리 없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더라'와 '我发现'은 쓰일 수 없다. 그리고 예문 (22)의 '－더라'와 '我发现' 구문에서 일어나는 인칭제약 현상은 인칭 제약 현상이라기보다 명제 내용이 '1인칭 화자가 모르고 있음'이라는 전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의미적인 충돌로 해석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

그리고 '－더라'가 쓰인 어떠한 문장은 '1인칭 화자가 명제를 봤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1인칭 화자가 명제를 알게 되었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전자는 '我看见/看到'과 대응되고 후자는 '我发现'과 대응된다. 아래 예문을 보면 명제인 '너희 형이 술담배를 피우다'는 사건시와 지각시가 겹치는 경우로 볼 수도 있고 행위의 대상인 '너희 형'이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4) 가. 너희 형은 술담배를 피우더라.
나. 나는 너희 형이 술담배를 피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21) 최태경(2005 : 299)에 의하면 중국어의 '发现'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연구・탐색 등을 통한 새로운 사물이나 규율 등의) 발견'이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모르던 일을) 알게 되다'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말하려는 '发现'은 두 번째 의미이다.

我发现你哥抽烟喝酒。

다. 나는 너희 형이 술담배를 피운다는 것을 봤다. (정문수, 1983 : 21)

我看见/看到你哥抽烟喝酒。

예문 (24나)와 (24다)의 차이점은 '我发现'과 '我看见/看到'의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다. '我发现'과 '我看见/看到'은 모두 시각을 통한 지각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전자는 명제가 발생한 후 명제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후자는 1인칭 화자가 명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 장면을 직접 봤다는 행위를 강조한다.

3) '느낌'의 의미를 실현될 때의 중국어의 대응 표현

마지막으로 '－더라'가 '느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 예문(25)는 각각 '－더라'를 통해 1인칭 화자가 '내가 어젯밤에 무척 덥다',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다', '냉면이 맛있다', '내가 호랑이가 무섭다'라는 명제를 느꼈다는 의미이다.

(25) 가. 나는 어제밤에 무척 덥더라. (太平武, 2013 : 240)

나.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더라. (송재목, 2011 : 37)

다. 냉면이 맛있더라. (송재목, 2011 : 37)

라. (내가 보니) 그 사람이 마음에 들더라. (목정수, 2020 : 456)

중국어에서는 명제가 1인칭 화자의 감각기관을 통한 느낌으로 획득한 것을 나타낼 때 '觉得[22]', 혹은 '感到'를 사용한다. 그리고 앞서 이미 밝혔듯이, 직접 증거의 의미를 나타낼 때, '觉得/感到'는 반드시 1인칭 화자인 '我'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면 위의

22) 林青(2014 : 66)에서는 '觉得'가 감관동사에 속하고 사람이나 어떠한 감각기관의 외부 자극으로 인한 느낌이나 체험을 나타내며, '感到' 혹은 '感觉'와 비슷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어 예문 (25)가 '我觉得' 혹은 '我感到'와 모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26) 가. 나는 어제밤에 무척 덥더라.

我觉得/感到(我)[23]昨晚很热。

나.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더라.

我觉得/感到香油的味道很香。

다. 냉면이 맛있더라.

我觉得/感到冷面很好吃。

라. (내가 보니) 그 사람이 마음에 들더라.

我觉得/感到那个人很令人满意。

한편, 정문수(1983)에 의하면 '-더라'가 '느낌'의 의미로 실현될 때 '동일주어제약'이 일어난다.[24] '동일주어제약'이란 명제의 주어는 1인칭주어와만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항상 서술어가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심리형용사일 때 일어난다. 이러한 '동일주어제약'은 '-더라'의 대응 표현인 중국어 직접 증거 표현 '我觉得/感到'가 쓰인 구문에서도 발생한다. 여기서 '感到'가 통합되는 문장을 예시로 들도록 하겠다.

(27) 가. 나는 매우 슬프더라./ *{너, 그녀}는 매우 슬프더라.

(김혜영, 2004 : 27)

나. 我感到(我)[25]很难过。/我感到*{你/她}很难过。

예문 (27가)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예문 (27나)와 같다. '-더라'는 중국어의 '我感到' 구성과 대응된다. '我'는 1인칭 화자이자 지각자이며 동시에 문

23) 중국어에서 모문(母文)과 자문(子文)의 주어가 같을 때, 자문의 주어가 생략할 수 있다.

24) 정문수(1983 : 20)에서는 '{나는, *너는, *그는} 오줌이 마렵더라'와 '{나는, *너는, *그는} 오줌이 마려움을 느꼈다'라는 예문을 제시하면서 '-더라'가 쓰인 문장과 '화자가 명제를 느꼈다'로 의역된 문장은 평행한 제약 관계가 성립됨을 제시하였다.

25) 중국어에서 모문(母文)과 자문(子文)의 주어가 같을 때, 자문의 주어가 생략할 수 있다.

장의 주어이다. '感到'는 지각 행위이자 문장의 서술어이다. '我感到' 구성은 명제와 층위가 다른데 명제의 주어가 1인칭주어와만 통합하는 이유는 '我感到' 구성이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我感到' 구성의 의미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我看见/看到*我去学校'와 달리 '我看见/看到' 구성이 없으면 비동일주어제약이 금방 사라지는 반면, 아래 예문 (28가)에서 제시한 것처럼 '我感到' 구성이 없이도 이러한 제약은 여전히 성립된다.

(28) 가. 我很难过。/?*你很难过。/?*她很难过。
나. 你看起来很难过。/她看起来很难过。

중국어의 '难过'는 '슬프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담화 상황에서 평서문일 때는 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와만 결합한다.[26] 우선, 평서문에서 '难过'는 2인칭 주어와 결합하면 매우 부자연스럽고 비문이 된다. 또한 화자가 3인칭 주어의 심리적인 상태를 직접 알 수 없기 때문에 청자에게 '她很难过'라고 할 수 없다. 문장을 예문 (28나)에서 제시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면 동일주어제약이 해소된다. 따라서 명제의 주어가 2, 3인칭 주어일 수 없는 이유

---

26) 尹岗寿(2021 : 95)에서는 중국어의 심리형용사가 인칭 제약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제시한 예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② a. 老员工没来找我, 我很伤心。(≪放下你的鞭子≫)
(선임 직원이 찾아오지 않아서 나는 매우 슬프다.)
b. 审讯员冷笑一声, "你高兴得太早了。"(雾珠≪幸福的障碍≫)
(심문원은 냉소하면서 "당신은 너무 일찍 기뻐했다."고 하였다.)
c. 她忏悔, 她伤心, 她觉得"党不要我了"。(谌容≪真真假假≫)
(그녀는 참회한다. 그녀는 슬프다. 그녀는 "당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의 견해와 입장을 달리한다. 우선, b는 담화 상황에서의 문장이다. '高兴'이 2인칭 주어와 결합할 수 있는 이유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청자의 심리 상태를 느낀 것이 아니라 청자의 반응이나 표정을 보고 청자가 지금 기뻐한다는 것을 추측한 것이다. c는 소설과 같은 문어체에서 나온 문장이다. 저자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심리 활동을 마치 직접 체험한 것처럼 글을 쓴다. 실제 담화 상황에서는 화자가 3인칭 주어 마음 속의 심리 활동을 알 수 없다.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는 자기만 온전히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전혀 느낄 수 없다. b와 c는 중국어의 심리형용사가 인칭 제약이 없는 사례로 보기보다는 인칭 제약이 해소된 문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담화 상황에서 평서문일 때는 심리형용사의 경험주인 주어가 반드시 화자와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我感到' 구성 때문인 것이 아니라 '难过' 때문인 것임을 알 수 있다.

(29) 가. 나는 매우 슬프다./ *너는 매우 슬프다./ *그녀는 매우 슬프다.
나. 너는 매우 슬퍼 보인다./ 그녀는 매우 슬퍼 보인다.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더라'가 없어도 '동일주어제약'이 성립된다. '슬프다'라는 형용사는 심리형용사에 속하고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와만 결합한다. 화자가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직접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은 예문 (29나)에서 제시한 것처럼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더라'는 명제의 서술어가 심리형용사를 취할 때, 명제의 주어가 2, 3인칭 주어일 수 없는 것은 심리형용사의 어휘적인 의미와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송재목(2011 : 43-44)와 목정수(2020 : 453)에서의 논의와 상통한다. 송재목(2011 : 43-44)와 목정수(2020 : 453)에서는 동일주어제약 현상이 '－더라'의 통사론적인 제약이 아니라 선행 명제의 서술어의 어휘내적 의미 사이에서 생기는 의미론적 충돌이라고 하였다.

5. 결론

이상의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론을 갈음한다. 우선, '－더라'는 '화자의 과거의 지각 행위'의 의미를 가지며 선행 명제의 성격에 따라 출현 환경은 상호배타적인 세 가지 의미, 즉 '봄', '알게 됨', '느낌'으로 실현될 수 있다.

중국어에서는 증거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주로 어휘적인 요소로 실현된다. 그중에서 '看见/看到', '发现', '觉得/感到'를 비롯한 감관동사는 1인칭 화자의 지각 행위인 증거성 의미를 나타낼 때, 항상 1인칭 화자인 '我'와 결합되어 문장에 맨 앞에 위치함으로써 주어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각각 '화자

가 명제를 봤다'와 '화자가 명제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화자가 명제를 느꼈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더라'가 '봄'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화자가 명제를 봤다'로 해석할 수 있고 중국어의 직접 증거 표현인 '我看见/看到'와 대응된다. 그리고 한국어 '－더라'의 비동일인칭제약은 중국어 '我看见/看到'이 쓰인 문장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더라'와 '我看见/看到'가 쓰인 구문에서의 비동일주어제약은 모두 '－더라'나 '我看见/看到'의 직접 증거 의미에서 기인한다.

'－더라'가 '알게 됨'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화자가 명제를 알게 되었다'로 해석할 수 있고 중국어의 직접 증거 표현인 '我发现'과 대응된다. '－더라'와 '我发现'은 모두 '모르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더라'가 쓰인 어떠한 문장은 '1인칭 화자가 명제를 봤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1인칭 화자가 명제를 알게 되었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전자는 '我看见/看到'과 대응되고 후자는 '我发现'과 대응된다.

마지막으로 '－더라'가 '느낌'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화자가 명제를 느꼈다'로 해석할 수 있고 중국어의 직접 증거 표현인 '我觉得/感到'와 대응된다. 그리고 '－더라'가 쓰인 구문에서 나타나는 동일주어제약 현상은 중국어 '我觉得/感到'가 쓰인 문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또한 '－더라'와 '我觉得/感到'가 쓰인 문장에서 명제의 주어가 2, 3인칭 주어일 수 없는 이유는 '－더라'와 '我觉得/感到' 때문이 아니라 명제의 서술어의 어휘내적 의미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더라'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응용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국내논저>
1. 영상자료
<슬기로운 의사생활1>
<RUN ON>

2. 단행본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서울 : 집문당, 2008.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2』,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나진석, 『우리말의 때매김 연구』, 과학사, 1971.
목정수, 『한국어, 그 인칭의 비밀』, 태학사, 2014.
_____, 『언어유형론, 정신 역학론 그리고 한국어 문법』, 한국문화사, 2020.
장경희, 『現代國語의 樣態範疇研究』, 서울 : 탑출판사, 1985.
최태경, 『동아 프라임 中韓・韓中辞典』, 서울 : 두산동아, 2005.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37.

3. 논문
강승혜, 「韓國語 文法書와 教材에 나타난 '－더－' 關聯 文法項目 意味 記述의 檢討와 '－더－' 關聯 文法項目의 提示順序」, 『어문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397~422쪽.
김혜영, 「'－더－'의 문법적 특성과 의미」, 『나랏말쌈』 19,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2004, 21~48쪽.
서 만, 「한국어 종결어미 '－더라'와 중국어 '来着'에 대한 대조 분석 연구」, 『韩民族语文学』 83, 2019, 9~44쪽.
_____,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더－' 결합형 연결어미 및 종결어미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서정수, 「'더'는 회상의 의미 지니는가?」, 『언어』 2-1, 한국언어학회, 1977, 97~127쪽.
손혜옥, 「현대 국어에서의 '－더－'의 범주적 위상」, 『한국어 의미학』 40, 한국어의미학회, 2013, 71~110쪽.
송재목, 「안맺음씨끝 '－더－'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 유형론적 관점에서」, 『국어학』 32, 국어학회, 1998, 135~169쪽.
_____, 「'－더니'와 '－있더니' : 선어말어미 '－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어학』 60, 국어학회, 2011, 33~67쪽.
송창선, 「선어말어미 '－더－'의 주어 인칭 제약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어과학연구』 73, 언어과학회, 2015, 121~136쪽.
신현숙, 「/－더라/의 쓰임과 의미」, 『논문집』 11, 건국대학교, 1980, 113~123쪽.
왕 방, 「한국어와 중국어 시제의 대조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왕 파, 「한・중 회상 표현 '－더－'와 '来着'의 비교」, 『한국어학』 58, 한국어학회, 2013, 135~157쪽.
유동석, 「'－더－'의 의미에 대한 관견」, 『관악어문연구』 6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1, 205~226쪽.
웅위문, 「한국어 '－더－'와 '－던'의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이은수, 「'来着'의 시간 의미 고찰」, 『중국어문논촌』 27, 중국어문연구, 2004, 119~136쪽.
이익섭, 「상대 시제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3,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78, 367~376쪽.
임동훈,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2008, 211~249쪽.
임홍빈, 「다시 {－더－}를 찾아서」, 『국어학』 23, 국어학회, 1982, 255~323쪽.
장경희, 「{더}의 의미와 그 용법」, 『언어』 8(2), 한국언어학회, 1983, 293~313쪽.
정문수, 「{더}의 의미 기능에 관한 연구」, 『논문집』 2, 대전대학교, 1983, 5~32쪽.
정인아, 「한국어의 증거성(Evidentiality) 범주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진관초, 「한국어 종결어미 '－더라'와 중국어 '来着'에 대한 대조 연구」, 『한국어학』 67, 한국어학회, 2015, 217~245쪽.

<국외논저>

1. 단행본

Aikhenval'd, A. 1U, *Evidentials(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Yang, In-seok, *Korean Synatax :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Paek Hap Sa, 1972.
太平武, 『中韩语言对比研究』,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2013.
陈　颖, 『现代汉语传信范畴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9.
吕叔湘, 『现代汉语八百词』, 商务印书馆, 2005.
刘月华・潘文娱・故韡, 『实用现代汉语语法』, 商务印书馆, 2005.

2. 논문

Lazard Gilbert, "On the grammaticalization of evidentiality", *Journal of Pragmatics* NO. 33, 2001, pp.359~367.
陈　征, 「英汉言据性系统的对比研究」, 『语文学刊』 4, 2015, 3~15页.
胡壮麟, 「语言的言据性」, 『外语教学与研究』 1, 1994, 9~15页.
赖小玉, 「汉语言语交际的言据性研究」, 『广东工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9, 2009, 85~88页.
乐　耀, 「现代汉语传信范畴的性质和概貌」, 『语文研究』 2, 2014, 27~34页.
林　青, 「不同人称和"认识动词"的搭配选择及其制约因素」, 『云南师范大学学报(对外汉语教学与 研究版)』 12-5, 2014, 64~73页.
吕朋林, 「"也谈'来着'"」, 『汉语学习』, 1987, 10页.
牛保义, 「国外实据性理论研究」, 『当代语言学』 7－1, 2005, 53~61页.
尹岗寿, 「汉韩心理形容词谓语句人称限制差异分析」, 『汉语学习』 2, 2021, 94~103页.
朱　敏, 「陈述语气中第二人称主语与动词谓语的选择性研究」, 『南京师大学报(社会科学版)』, 144~148页.
朱永生, 「试论现代汉语的言据性」, 『现代外语(季刊)』 29-4, 2006, 331~436页.

韩语“－더라”在汉语中的对应表现分析

宋胜男*

本研究从韩中对比分析的角度着手，研究分析了韩语“－더라”的汉语对应表现。经分析韩语“－더라”具有“话者过去的知觉行为”的言据性意义，根据先行命题的性质可以将其意义细分为“봄”、“알게 됨”、“느낌”。以往研究中，多数研究将“－더라”的对应表现形式分析为“来着”，或者时制助词“了1”、“过”等，但本文立足于汉语的言据性表现方式，考察了“－더라”的对应表现形式。结果证明：“－더라”在实现“봄”的意思时，与汉语的“我看见/看到”相对应;在实现“알게 됨”的意思时，与“我发现”相对应;在实现“느낌”的意思时，与“我觉得/感到”相对应。此外，所谓“－더라”的“비동일주어제약”和“동일주어제약”现象在“我看见/看到”和“我觉得/感到”出现的句子中也可以观察到。希望这样的研究对面向中国人的关于“－더라”的教育资料和教育方案的制定有所帮助。

關鍵字：“－더라”，言据性，中文对应表现，“我看见/看到”，“我发现”，“我觉得/感到”，主语人称制约现象

논문투고일 : 2021년 7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8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8월 23일

* University of Seoul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octor course completion